

회의안건 96/6/26

발신 : 위원장

수신 : the other

한 학기가 어느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지나간 한 학기는 바로 the other의 첫 학기였으며, 또한 연세대학교/한국 대학 사회에서 성정치 운동의 첫 6개월이었다. the other가 성정치 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한 학기의 평가가 중요하며 방학2학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순서 1. 평가

2. 방중 계획

3. 2학기 계획

4. 분담 체계 강화! 각 부장의 말씀

5. 슬로건!

1. 평가

a)한 학기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발족식/일일호프

-노동절 기념 문화제 “선/전/포/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고함!”

-미인대회반대시위

-미인대회폐지를 위한 토론회 “객관적 미인이란 존재하는가”

=>각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셈이며 (토론회 제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the other의 정체성의 형성하는 과정, 즉 우리가 성정치를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b)한 학기 세미나 내용에 관한 평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였는가.

c)the other운영에 관한 평가

-실무분담 체계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엄두에 두면서 세세하게 평가해봅시다!

2. 방학 중의 계획 수립

a)“새로운 학생운동의 새로운 의제와 행동전략을 위한 96 참여/자치/연대 학생 대회”

일시 : 7월 26일-28일 (금-일)

장소 : 한양대학교

나머지는 별도의 문건 참조

-참여수준은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로 결정하였음. 성정치 연합에서 정책팀을 꾸려서 그 팀이 실무와 준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책팀은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될 예정. 즉, 시간과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 the other에서는 현재 한지영이 참여하겠다는 의사 밝힘.

-the other는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대회 발기인으로 '성정치 연합(준)'의 이름으로 결의할 것이나. 그리고 성정치 연합 단위로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단위로 결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참석할 것인가. 이것은 성정치 연합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학생대회의 의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b)캠프

지난 연합 회의 때 성정치 캠프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시기 : 8월 16일-18일 (금-일)

주최 : 성정치 연합 (준)

대상 : 성정치 연합 (준)을 이루고 있는 각 대학 성정치 활동과 그 외의 관심 있는 사람 (인원 한정)

인원 : 약 100명

목적 : i)8개 대학에 퍼져있는 약 80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정치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론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지만, 주로 단기적/장기적 성정치 운동, 즉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 또한 새로운 '캠프'에 대한 모색을 하며, 이것은 곧 새로운 운동 형태에 대한 모색과 직결되는 것이다.

ii)각 대학 활동가들 사이에 동지감과 성정치 연합에 대한 소속감 형성

내용 : 위의 목적에 걸맞는 것. 몇 가지의 제안/아이디어

-한국사회의 여성의 위치 (총선 정책 등을 통해서 본)

-기존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운동과 성정치 운동의 차이점/공통점

-성과 대중매체 (포르노 등)

-담론 분석. 동성애/성/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 분석

-노동운동과 성정치 운동

-그 외에 성정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들

-각 학교에서 세미나/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을 발표해본다.

=>다음 회의 때까지 캠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야하니 많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루고 싶은 주제와 방법. 하고 싶은 행사 등

c)방학 중 the other의 계획

i)세미나

ii)공간

-공간 문제에 대한 공유가 사실 the other내에서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제2대학과 함께 공간투쟁을 벌이고자 이유? 학생회 중심의 대학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정치/제2대학 등 기존의 학생회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운동들에 대한 이야기들.

-구체적인 전략들

iii)캠프를 위한 준비

iv)정보 통신을 매개로 성정치 담론 투쟁. 많은 글을 쓰고 그 글들을 통신에 띄우자.

3. 2학기 계획 수립

a)독자적인 행사

-한 학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의 문제 의식들을 독자적인 행사를 통하여 표현해보자. 법대 쪽에서 지난 학기에 못한 문화제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b)제2대학에 성정치 강좌를 설립하는 것.

c)제10대 총여 선거 ▲

-성정치가 총여라는 기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총여라는 기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총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주사 총여를 단절시키고 성정치를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란?

=>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당장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가 2학기 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따라 좌우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바일 것이다. 선거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4. 조직 체계

- the other의 운영에 관한 평가에 이어서 앞으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자기가 맡은 책임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각 부장들의 이야기

5. 슬로건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항상 말로만 끝났다. 이 기회에 생각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성정치 운동을 대학에서 펼치는 데에 첫 시발이 된 것도 the other이며 그만큼 우리는 책임도 있고 또한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정치 운동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각각은 한국 사회에서 성정치 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위원장으로 하고 싶은 말은 the other의 성원 각각 공간도 없고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쁜 악조건 속에서도 연세대학교와 더 크게는 한국의 대학 사회에서 성정치가 자리매김하도록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모두들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합시다 ♥

